

문대통령·5당 대표 ‘日 경제공격’ 중점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상조 정책실장.

내일 오후 4~6시 회동 합의... 1년 4개월만의 만남
만찬 없이 티타임 ... 추경·선거법 등 의제 열여두기로

여야 5당은 16일 일본 수출규제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18일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회동을 갖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자유한국당 박맹우·바른미래당 임재훈·민주평화당 김광수·정의당 권태홍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문 대통령과 대표들의 회동을 오는 18일 오후 4~6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청와대 역시 여야 간 합의대로 회동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의 청와대 회동은 지난해 3월 5당 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1년 4개월, 지난해 11월 5당 원내대표 회동을 기준으로 9개월 만이다. 올해 상반기 내내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두고 ‘강대강’으로 대치하던 여야 지도부가 모처럼 정국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이다.

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은 회동 후 브리핑에서 “18일 회동에서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로부터 보고를 받고, 여야의 초당적 협력 방안과 국정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자유한국당 황교안·바른미래당 손학규·민주평화당 정동영·정의당 심상정 대표와 각 당 비서실장, 대변인이 배석할 예정이다.

또 정부 측에서는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청와대 참모진과 국무위원이 참석해 여야 대표들에게 보고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초당적 대응을 회동의 핵심 의제로 제시했지만, 각 당 대표들이 이외의 논의도 제한없이

할 수 있도록 열어두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개정, 검정 수사권 조정, 추가경정예산(추경) 등의 쟁점 현안이 두루 거론되면서 회동이 다소 과열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편, 여야 5당은 회동의 의제가 의제인 만큼 허심탄회하게 식사하는 분위기보다 진지하게 대책을 논의하는 분위기가 낫다고 보고 형식을 오찬이나 만찬이 아닌 ‘티타임’으로 결정했다. 바른미래당 임재훈 사무총장은 “오후 6시에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대화가 깊어지거나 넓어지면 시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만찬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여야 사무총장의 이런 합의소식이 전해지자, 청와대 역시 이를 그대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여야의 합의를 존중한다”며 “일본의 경제 보복에 대해 초당적이고 전 국민적인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그 자체가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日 강제징용 ‘제3국 중재위 안’ 거부

청와대는 16일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를 논의한 ‘제3국 중재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사실상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제3국 중재위 제안과 관련 기존 정부의 입장에서 변화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또 일부에서 논의되는 강제징용 피해자

에 대한 이른바 ‘1+1+α’ (한국 기업+일본 기업+한국 정부) 보상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할 수는 없다. 일부 언론에서 이를 정부가 검토한다는 기사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 숨진채 발견

호남에 애정·시사 패널 등 활동 활발...자택에 유서 남겨

정두언(62) 전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의원이 16일 숨진 채 발견됐다. 서울에서 태어난 뒤 어린시절을 광주에서 보낸 정 의원은 생전 ‘호남 사람’임을 강조했고, 호남 발전에도 힘을 보탰다.

16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이날 오후 4시 25분께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인근 북한산 자락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 전 의원은 오후 2시 30분께 산 쪽으로 올라간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3시 42분께 정 전 의원의 부인은 그가 자택에 남긴 유서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의 요청을 받고 소방당국이 함께 수색에 나서 정 의원을 발견했다. 발견 당시



정 의원은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유서가 발견된 점 등으로 미뤄 정 전 의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파악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서울시 부시장을 지내다가 2004년 17대 총선을 시작으로 19대 총선까지 서울 서대문구에서 내리 당선됐으며,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출마했다 낙선했다. 낙선 이후에는 종합편성채널

시사·예능 프로그램의 진행과 패널로서 활발하게 활동했으며 마포에 음식점을 개업하기도 했다.

이명박 대통령 실세로 통했던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 부의장의 불출마를 요구하는 ‘55인 파동’에 앞장선 후 입지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불우한 가정 형편 탓에 정 전 의원은 어린시절 외삼촌의 양자가 돼 광주시 서석동에서 5년을 지난 인연으로 생전에 호남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나타내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평화당, 당 진로 놓고 끝장토론

심야 의총...자강론 vs 제3지대 창당 결과 주목

민주평화당이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심야 의원총회를 열어 당의 진로를 둘러싼 ‘끝장토론’에 나서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독자적 자강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정동영 대표를 필두로 한 당권파와 제3지대 창당에 나서자는 유성엽 원내대표 등 반(反) 당권파가 공개 논쟁에 나서는 모양새로, 과연 정치적 합의를 이룰 것인지 아니면 분당 수순으로 접어들 것인지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일단 당 내외에선 정치적 합의가 쉽지 않아 사실상 분당 수순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도 우세하다. 이를 반영하듯, 정 대표는 전날 당내 별도 기구를 설치해 제3지대 구성을 논의하자고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반당권파는 체제

연장의 방책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제3지대에서 함께 할 정치적 실체가 없고, 결집이 필요한 시점에서 갈등의 모양새는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 극적인 합의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의총에서 신당 창당의 결론이 나온다면 과연 언제 이를 실행할 것인지 주목된다. 비당권파 진영에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 이전에 제3지대 신당에 대한 그림을 제시하고 9월 정기국회 이전에 창당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전반적인 흐름이다. 이에 따라 내달 중에 신당 창당의 움직임이 가시화되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김홍걸 “총선 출마 결정된 것 없어”

광주 국회출입기자 간담회...“출마 안해도 내 역할 할 것”

김대중 전 대통령(DJ)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16일 광주지역 국회출입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내년 총선 출마 문제와 관련,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당과 협의해서 하겠다”며 “호남에서 출마를 하지 않더라도 (지원유세 등) 역할은 제가 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복송금 특검 문제를 거론하는 자체가 웃기는 일”이라며 “그분들이 노무현 정권 초기 때 실세였는데 대북송금 특검 때 말리지도 않고 구경만

했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장은 또 동교동계 인사들에 대한 불편함도 나타냈다. 김 의장은 “그분들이 탈당하기 전에 하던 말이 ‘친노가 다 해먹는다’, ‘호남을 푸대접한다’는 것인데 그런 얘기를 자격이 없다고 본다”며 “그분들이 정권 실제로 좋은 자리 있을 때 후진 양성을 잘 했으면 후배들이 민주당 주류로 성장했을 것이며 (그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니냐”고 비교했다.

그는 이어 일부 동교동계 인사들이 어머니(이회호 여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기도 했으며 원색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18 피해자 진상규명 신청기한 연장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관련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개월이 지나도록 구성조차 되지 못한 가운데 우선 피해자의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는 전날 법안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5·18 특별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진상규명 신청기한을 법 시행부터 1년이 아닌 진상조사위 출범부터 1년으로 ‘현실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전원주택 매매

신축건물

전남 무안군 윤남면 내리 190-1, 190-6, 190-7

전원주택전경

창밖 풍경

유명한 풍수가 추천해준 곳, 수맥이 전혀 흐르지 않은 명당 중에 명당이며 선착장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며 거실에서 바다가 훤히 보이는 조망권이 아주 좋은 곳입니다.

- 190-6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7번지면적: 810㎡, 건평: 83㎡, 매매가: 1억8천4백만원
- 190-1번지면적: 660㎡, 건평: 83㎡, 매매가: 1억7천5백만원

☎ 010-4061-7200

oticon PEOPLE FIRST

115년 전통의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광주지사 3주년 특별행사

062-364-8800

- ✓ 부담 없는 무료 청력 테스트
- ✓ 30일간 보청기 무료 테스트
- ✓ 배터리 1+1 추가 증정
- ✓ 청각 장애인 정부 보조금 최대 131만원 지원

홈케어 서비스

거동이 불편한 고객님들을 위한

무료 가정방문 출장 서비스

4

화정역

4

농성역

덴마크 오티콘 보청기 / 광주지사

상무대로

오시는 길

화정역 4번 출구 / 농성역 4번 출구에서 100m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85 1층 102호